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 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단식·3천배 비장한 정진의 뜻 아는가?

릴레이단식정진 비망록

속초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7. 15)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정한 절대보호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가 앞장서서 망가뜨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불자들이 나서서 이 지역을 보존해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김천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7. 21)

우리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 산중에 앉아서 참선만 할줄 알았지, 이 나라가 어떤 모양새로 변화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우리 수행자들이 단합해 '분신'도 불사하는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북한산을 수호해야 한다.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7. 23)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만중생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구의 영장인 인간의 책임이다. 인류가 자연에 대해 보상해야 할 때가 왔다.

순천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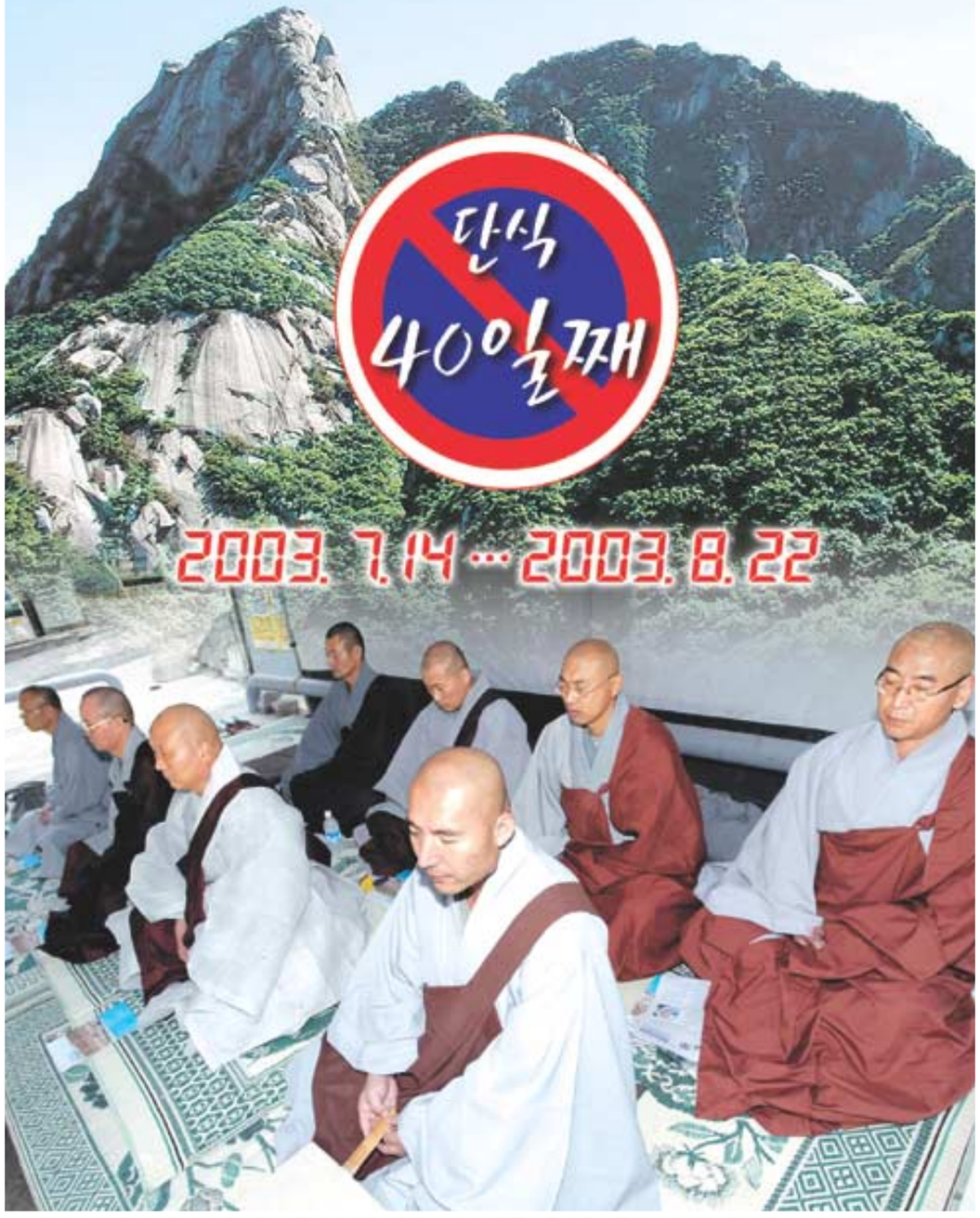
북한산은 우리나라의 진산이다. 한양에 정기를 끌어오는 주산이다. 이 산에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정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더구나 한양터를 잡은 분은 무학스님이다. 그러기에 우리 불자들이 더욱더 나서서 북한산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8. 3)

산을 허물어, 그것도 정부 스스로 지정한 국립공원을 허물어 도로를 내는 것은 과거 개발만능주의 시대 정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했듯 북한산 관통도로를 백지화해야 한다.

하동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8. 19)

자연과 인간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불자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릴레이 단식정진 37일째인 8월19일, 하동 쌍계사 주지 원정스님(사진 앞쪽 가운데)을 비롯해 쌍계사 본·말사 주지스님 10여명이 단식 정진을 하고있다.

도심속 30도 더위 불구 단식 정진
조계종 교구 스님 비롯 230여명 동참
저지 이후 발생되는 파괴 행위도 단호히
30일부터는 범종단적 참여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번져오는 열기가 온몸을 끈적끈적하게 휘감아 돈다. 지나가는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소음은 코와 귀 뿐 아니라 온 신경을 짓누른다.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스님들은 묵묵히 정진하고 있다. 이열치열 정신으로, 매연을 향내삼아, 소음이 풍경소리로 들리는지 미동조차 없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홍) 앞 천막법당. 30도에 가까운 더위도 불구하고 10여명의 스님들이 가사, 장삼을 갖춘 채 가부좌를 틀고 있다. 천막위에는 '참여정부의 북한산 관통노선 백지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조계종 교구본말사 주지스님 단식정진도량'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스님들은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 촉구 '릴레이 단식 정진' 중이다.

스님들이 교구본사별 단식 정진을 '릴레이'로 하는 이유는 이번 정진이 단발마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파괴적인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스님들이 '단식'이라는 정진 방식을 택한 것은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을 몸속 깊이 느끼기 위해서다.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남이 아프듯, 인드라망의 그물 속에 있는 중생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수행자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스님들의 '정진'은 더 이상 깊은 산속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땀 냄새 나는 치열한 현장에서 중생들과 살을 부비며, '좌선(坐禪)'이 아닌 '행선(行禪)'으로 구도(求道)의 길을 걷는다. 중생들의 고통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서라도 기꺼이 삼매(三昧)에 드는 것이다.

7월 14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단식 정진은 40일 째인 8월 22일 현재 조계종 각 교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230여명이 동참했다. 30일부터는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범종단적으로 동참해 단식 정진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예정이다.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 촉구 릴레이 단식 정진은 이제 시작이다. 또 다른 북한산이, 또 다른 뭇 생명이 파괴된다면, 아스팔트를 베고 죽을 각오로 치열한 정진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생명체임을 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기에.

글=남동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지율스님 부산시청 앞 3천배 기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다. 수행자로서 내가 생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기존 노선이 최적노선'이라는 정부와 고속철공단의 여론 몰이가 한창인 가운데 지율 스님은 8월13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3천배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잦은 비, 내리꽂히는 햇살,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전 8시~11시, 오후 1시~4시, 오후 6시~9시, 하루 9시간 동안 시청 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다.

"나의 목숨은 천성산의 미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천성산 관통 노선이 백지화될 때까지 생명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안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천배 기도 7일째인 19일, 저혈압으로 스님의 기도

"내 목숨은 천성산 미래와 함께"

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스님은 다시,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의 소리, 시민의 소리를 담아 전하는 일이 스님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스님은 "환경적으로나 안정성에서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노선 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3천배 기도가 계속되자 38일간의 단식 농성동안 그러했듯 부산시청 앞에는 지율스님의 뜻에 동참하는 초록의 공명,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초등학생 등 시민들의 동참이 서서히 늘고 있다. 매일 밤 3000배에 동참하고 있는 회원 중에는 사고로 의족을 한 사람도 있어 천성산을 지키려는 간절함을 더하고 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의 의지를 꺾고,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산을 파괴하는 죽음의 터널을 뚫으며 달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옵나니 참회를 받아주시고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스님의 등위로 나무 그늘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의 흐름을 말해준다. 그렇게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생명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스님의 절은 멈추지 않았다.

동참문의:011-9306-8033 부산=천미희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